

12일 간의 행복했던 시간들

김 원 자*

◆ 회의 참석을 준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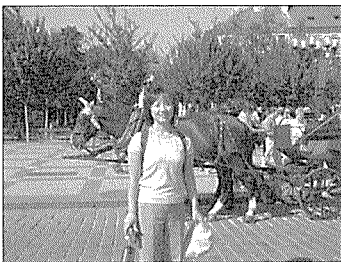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당시 도서관학)을 공부하고 졸업한지 어언 20년이 되어가지만 1987년 외교통상부에 입부(入部)한 이래 외교문서 관리업무만 계속하던 내가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맡기 시작한 지는 불과 2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전공이론시간에나 들었을 것 같은 국제도서관연맹(IFLA) 총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이 자긍심과 동시에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드디어 출발 일을 며칠 앞두고 출장가방을 준비하면서 7월초 독일지역을 다녀온 직원의 친절な 조언을 받아 우리나라 가을 날씨에 적당한 긴 팔 옷과 면목도리까지 챙겨 가는 꼼꼼함(?)을 발휘하였다. 울려무머운 서울을 벗어나 시원한 독일맥주의 맛과 향을 느끼고 독일통일의 역사적인 현장을 보며 나의 존재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직장동료들의 부러움을 뒤로 한 채 프랑크푸르트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독일을 포함한 유럽전체가 기상이변과 폭염의 한복판에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출발하기 전 현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져간 얼은 색의 선글라스는 차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고생을 했고, 또한 서울에 돌아와서 선물로 돌린 초코렛이 모두 녹아 붙어 현지의 폭염을 간접적으로나마 실감나게 설명하는 듯 했다.

◆ 역사적인 도시 베를린에서

IFLA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및 학교도서관등에서 함께 간 우리대표단들은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8월 2일 밤늦게 베를린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시차와 장시간의 비행에 지쳐 유럽의 폭염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도착 다음날 아침 생각보다 쉽게 눈이 떠진, 아니 거의 잠을 못 잔 나와 동료는 베를린 국제회의센터(International Congress Centre in Berlin, ICC Berlin)에 도착, IFLA본부에서 지원 나온 진행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간단히 등록을 마친 후 회의장과 그 주변을 둘러보며 첫째 날을 보냈다.

둘째 날인 8월 4일 오후 4시 드디어 "Access Point Library : Media - Information - Culture"란 주제로 전 세계 4천 여명이 넘는 많은 도서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8일 폐회식까지 총회기간동안 45개 분과위원회 그룹별로 주제와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등 230여 개의 회의가 진

*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도서관 사서, wjkim91@hanmail.net

행되었다. 주제와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여 전문도서관 관련 회의장을 찾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나와 동료가 참석한 Section의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Workplace Learning〉

전문직 계속교육 분과위원회의 주제발표 중 하나인 영국 공공도서관에서 개발한 훈련교육프로그램은 전 직원이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교육을 받아 실제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서 소규모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최신의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Alexandria Libraries〉

UNESCO 등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복원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건물, 장비에 대한 소개 및 고대 문화유산인 필사본·회귀본 및 기타 소장자료들을 복원·보존하기 위한 Manuscript Cataloguing Unit, Heritage Publishing Unit 등 도서관 조직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3.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등에서 소장하고있는 산성종이로 된 자료들의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보편적인 보존방법은 탈산화방지, Microfilming과 Digitizing이며 이에 덧붙여서 기록물의 원본자체를 가급적 활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s(CLM)〉

저작권 및 기타 법률문제위원회에서 자료들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고있는 시점에서 복사를 무조건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U지역의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EUCD)' 를 예로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글로벌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5. Reference Work〉

과거 참고봉사단 도서관에 찾아온 이용자에게 소장자료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전부였으나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화된 참고봉사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E-mail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살아있는 참고업무(Virtual Reference) 또는 디지털 참고업무(Digital Refer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총회기간에 가장 기대하던 일정중의 하나가 베를린 국립도서관(Berlin State Library 1B) 견학이었다. 우리 일행이 도서관을 방문하던 날, 동 도서관 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있는 유일한 한국인 사서가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니 혈육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자랑스러웠다.

독일은 과거 '프로이센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약 1,000만권의 자료들을 1~2차 세계대전시기에 독일 전역 30여 군데로 분산 소장하였었는데 동·서독으로 나뉘면서 소련 점령지역은 Berlin State Library 1A로 3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있고, 미·영 점령지역은 Berlin State Library 1B로 500만 권, 그 외 기타 도서관에 신문이나 이용률이 낮은 도서 200만 권 등으로 분산 소장되어 있었다.

그 후 서베를린지역 도서관의 확장을 위한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새로운 도서관은 건축가 샤론이 1964년에 설계를 마쳤으나 당시의 건축기술이 설계도를 따라가질 못해 3년 후인 1967년에야 착공하여 1978에 준공하였다고 한다. 도서관의 전체 모양은 배 모형이고 규모는 지상11층 지하3층으로 1~5층은 복층 열람실과 참고도서실로, 6~11층은 서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가 서고부족으로 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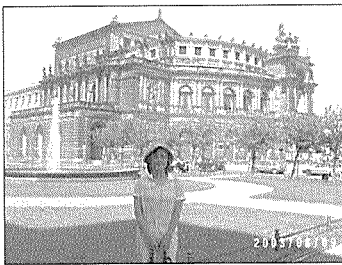
최근에 지하2층을 서고로 변경하여 200만권의 도서를 보관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서관 이용이 무료였으나 통독 후 동베를린 1A 도서관의 수선·복구비용 마련을 위하여 1일 50센트, 1년 15 EURO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한 열람실은 천장이 높고 서가마다 윗부분에 형광등을 설치하고 모든 열람용 책상에 스탠드, 전원코드가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였다. 열람좌석은 총 850석으로 1일 이용자를 3,500명으로 제한하고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활용도 여유 있어 보였다.

8월8일에 거행된 폐회식은 베를린 총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08년도 총회 개최국으로 캐나다의 퀘벡시가 선정되었다는 발표와 아울러 2004년도와 2005년도 개최 예정국인 아르헨티나와 노르웨이 개최도시의 영상자료와 고유민속음악, 춤 등의 공연이 있었다.

IFLA총회 참석이라는 공식 일정을 끝낸 후 나와 동료는 가벼운 마음으로 브란덴부르크문과 베를린 장벽을 돌아보고 베를린의 대표적인 바로크양식의 건축물인 샤를로텐부르크성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베를린의 마지막 날을 아쉬워 하였다.

◆ 야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의 고도(古都)



14시간의 긴 여정으로 도착한 유럽이기에 IFLA 총회만 참석하고 서울로 되돌아간다면 평생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가족과의 올 여름휴가를 포기하고 또 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사무실 동료들의 양해를 얻어 총회일정 외에 포함된 매력적인 나라 체코,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 도서관 방문계획에 합류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주변사람들에게 미안함이 많았으나(특히 우리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다) 유럽에 도착한 나는 서울의 복잡한 일상을 잊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였다.

8월9일 우리 일행은 버스로 4, 5시간을 이동하여 오후 늦은 시간에 체코의 프라하에 도착하였다. 과연 동유럽의 파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건축양식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도시전체가 박물관 그 자체로 보였다. 프라하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까를대교(Charles Bridge)는 주말이어서 그런지 늦은 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래도 까를대교(Charles Bridge)에서 바라보는 프라하성과 다뉴브강가의 아름다운 야경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8월10일 도착한 오스트리아 빈은 음악의 도시답게 어디를 가든지 음악이 나를 휘감는 듯하고 마차와 자동차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에 독특한 멋이 있었다. 오전에 방문한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은 구관과 신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관은 1723년에 착공하여 1726년에 완공된 지상2층 지하4층 규모의 바로크양식 건물로 천장화나 서가를 포함한 내부전경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웅장하고 고풍스런 모습이었다. 구관의 전체면적이 15,000㎡, 직원이 약 330명으로 1500년대부터 1800년대의 고서 20만권을 보존하고있다. 구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들은 5년마다 전체적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0권이 목록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컴퓨터 검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달리 신관은

10여년 전부터 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있는 건물로 1850년대부터 현재의 도서 및 자료 약 9억5천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직원은 약 1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음악의 도시 빈에서의 밤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운 일행들끼리 매일 밤 요한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연주회를 하는 Kursalon이라는 극장에서 아름다운 모짜르트 곡과 요한스트라우스 왈츠곡을 감상하며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인양 극장주변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과 함께 마냥 행복해 하였다.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에서 투숙한 호텔 '힐튼 부다페스트'는 언덕에 위치해 있어 주변을 산책하면서 도시전체의 야경을 감상할 수가 있어 정말 좋았다. 유명한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구(舊)도시 부다와 신(新)도시 페스트로 나뉘어져 있고 헝가리 전체인구가 1,000여만 명인데 1년 관광객이 6,000만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역사유적지이고 관광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로 출발하기 몇 시간전 방문한 헝가리국립도서관 건물은 Szechenyi Ferenc라는 사람이 1848년에 건립하고 도서관의 장서를 구입 기증하였다고 하며, 최근까지 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15년 전부터 도서관으로 사용되고있는 200년의 역사를 가진 고풍스런 곳이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전시관이 혼재된 복합적인 공간활용이 돋보였다. 그러나 아직은 도서관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1990년 이전자료는 카드목록으로, 1990년 이후자료는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동 도서관은 8월 한달 동안 도서관 내부소독 등 작업을 위하여 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의 방문을 허락하고 세세히 설명해 준 직원의 친절에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유럽의 기상이변으로 기록적인 무더위를 겪어야 했었지만 그래도 독일에서의 일주일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인류의 보고(寶庫)인 도서관에서 근무한다는 한가지 공통점만으로도 너무나 반갑고 친근함을 느꼈던 시간들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도서관 수준도 세계 어느 도서관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 같아 도서관인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통독이후 독일인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단된 모습보다는 통일된 모습이 훨씬 행복해 보였다. 아울러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남은 장벽에 벽화를 그려 East Gallery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 유적지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서로 적대적이던 동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보니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가 되었기에 오래된 역사유물들이 완전한 모습을 현재까지 유지하게 된 것이 아닐까하는 엉뚱한 생각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12일이란 짧은 기간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충전된 에너지를 만끽하고 있다.